



人力資源을 活性化하자

崔 永 泰

大韓産業保健協會·會長

本協會가 그 事業의 性格과 發展을 널리 社會, 經濟 學界, 勤勞大衆等에게 알리는 것은 國家와 國民의 繁榮에 기여하는 바가 심히 크기 때문이다.

産業保健事業은 工場을 위시하여 農漁村과 各職場에서 일하는있는 勤勞者 從業員 經營者等を 包含하여 그들의 作業人力을 産業保健의 多様な 專門知識으로 科學的으로 活性化를 이룩하여 作業하고 있는 人力資源을 能率的으로 또는 効率的으로 昇化시켜서 生産性을 倍加하고 品質向上과 原價切下를 이룩하는 企業經營과 生産에서 가장 重要한 事業인것이다.

우리나라가 近代工業化過程에서 先進工業國에서 모든知識 即 近代産業技術 熟練工訓練 經營合理化等的 知識을 導入하여 驚歎할만한 工業發展을 이룩하여 1976년에 80억 \$의 輸出을 이룩하였으나 여기에서 빠진것이 있다면 作業하고 있는 勤勞者 또는 從業員의 産業保健事業의 發展으로 얻어지는 生産性提高라는 部門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産業保健은 韓國人인 勤勞者와 從業員의 힘을 科學的 即 産業保健醫學의 開發로서 韓國人이 가진 無限한 體力 意慾 適性등을 發揮케하는 莫重하고도 愛國的인 資源인 것이다.

大統領閣下는 年頭工團巡視에서 企業主는 工場의 有害作業環境을 改善함으로써 工場內에 作業意慾의 旺盛하여져서 새마을精神의 工場이되며 勞使一體感을 이룩하고 莫強한 生産性을 增大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訓示를 한바있다.

우리나라 企業이 民族中興의 目標을 達成하고 健全한 現代의 企業으로 發展하기 爲하여는 우리의 固疾인 鎖國的 企業運營을 脫皮하여야 할 것이다. 經營의 責任을 가진 人士는 마땅히 先進諸國에 있어서 作業人力資源의 科學的 開發이 어느 狀態에 있으며 우리韓國人 勤勞者의 힘을 어떻게 科學化하여서 無限한 힘을 埋藏시키지 않고 活性化할 것인가하는 方途에 細心한 關心을 가져야 마땅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勤勞者 從業員의 産業保健은 勤勞基準法에 明示한바와 같이 企業主가 責任을 가지고 保護하고 開發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 點이 保健社會部가 直接責任지고 있는 公衆의 保健事業과 다른 點이다.

工場 鑛山等的 生産過程에는 原料, 副產物 및 作業環境이 勤勞者에게 有害 또는 有毒한 여건에 놓이게되고 있는일이 普遍的으로 常存하는것이 科學的常識이기 때문에 企業主는 法的으로 그 責任을 져야하는 것이다. 企業主는 이 問題를 絕對로 등한히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 理由는 盛衰를 가름하는데 勤勞者와 從業員의 人命은 극히 소중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이 가지고있는 天賦의 無限한 힘을 科學的으로 極大化시키는 産業保健事業은 기필코 發展시켜야할 것이다.

이 發刊物은 벌써 發刊되어야 하였을 것으로 晚時之歎이 있기는하나 始作이 반절이란 말로 自慰하는 바이며 앞으로 每2個月에 一回씩 發刊하여 企業主 經營幹部 勞者勤 從業員 産業保健管理者 및 要員들에게 配付하여 後進狀態에있는 韓國의 産業保健事業發展에 莫重한 責任을 다하고자 하는 바이다. 關聯되시는 여러분의 깊은 參與를 바라며 또한 支援을 바라는 바이다. ●